

조선 후기의 원예: 교유(交遊)와 화훼를 매개로 한 지식 실천

정저싱(鄭澤星)[†]

1. 머리말

조선 후기 지식인이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화훼를 재배, 감상하는 원예 활동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예의 성행은 사물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여향문화를 비롯한 문예적 취향의 발달과 맞물려, 지식인의 정신적·문화적 활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국어국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원예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산된 문화 현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거나, 원예 활동 속에서 창출된 문학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¹ 한편 원예 활동과 관련된 화훼 지식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다룬 지식사학적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대체로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유박(柳璞, 1730~1787)의 『화암수록(花菴隨錄)』, 서유구(徐有集, 1764~1845)의 『예원지(藝畹志)』 등 문헌에 수록된 품종 정보와 재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개별 지식인이 재배 경험과 문헌 참고를 결합하여 화훼 지식을 재구성, 체계화하고 이를 저술로 남긴 것으로 파악하는 데 머물러 왔다.²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ino00814@gmail.com

¹ 정민, “『花庵九曲』의 작가 柳璞(1730~1787)과 『花庵隨錄』”, 『한국시가연구』 14 (2003), 101-133;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2005), 35-77; 안대회,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2012), 65-96; 김정화, “The Origin and Evolution of Botanical Gardens in Korea 우리나라 식물원의 기원과 진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물론 『화암수록』이나 『예원지』와 같은 원에 전문 저술에 정리된 화훼 지식 이 저자의 재배 실천과 문헌적 탐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김상휴(金相休, 1757~1827)는 지인 심윤지(沈允之, 1748~?)의 『초목화훼보(草木花卉譜)』에 서문을 쓰면서, 이 책이 “기이한 화훼를 구해 정원에 나란히 심고 각각의 명칭, 색채, 형상, 성질 및 재배법을 기록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위로는 『시경』과 『이소』를 본받고, 아래로는 세속의 방법을 채록하며, 그 중간에서는 백가의 논의를 두루 참고하여 종합, 정리했으므로 넓 으면서도 정밀하다”고 평가하였다.³ 또한 꽃을 그린 사생첩인 김덕형(金德亨, 1750~?)의 『백화보(百花譜)』에 대해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김군이 화원으로 달려가 눈으로 꽃을 주시하며 하루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는다. 그 아래에 자리를 깔고 누워 꼼짝하지 않으며, 손님이 와도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고 하며, 그의 몰입적인 화훼 연구 실천을 묘사하였다.⁴ 이처럼 개인적 경험과 문헌 지식을 결합하여 화훼 지식을 통합, 재구성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 원에 연구의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원에 활동에 몰두한 다수의 지식인에 게서 이러한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관련 저술에 드러난 화훼 지식의 축적과 정리는 상당 부분 지식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원에 문화의 발전과 화훼 지식의 생산은 개인의 고립된 지적 활동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저술이라는 결과물로 환원될 수도 없다. 이정은 조선 후기의 두루미 키우기 사례를 통해, 관상 식물이나 애완 동물과 같은 구체적 사물에 대한 완물적 애착과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물에 밀착된 재배·사육 활동에서 촉발된 실천적 탐구가 지식

2 김영진·김희성, “조선시대에 편찬된 화훼서에 관한 연구”, 『한국꽃예술학회지』 10 (2007), 42-54; 강민구, “類書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花卉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56 (2013), 39-72;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에 문화”, 『동방한문학』 56 (2013), 73-96; 윤지안, “조선후기 화훼문화의 확산과 화훼지식의 체계화”, 『동학사연구』 15:1 (2016), 49-75; 김동현·이원호, “조선시대 정원의 지식정보 전개와 수용 - 15~19세기 편찬된 정원 및 화훼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1 (2020), 10-20.

3 金相休, “沈士執草木花卉譜序”, 『南華漫錄』 卷2. “又以暇日則求佳木異卉, 奇花裸果, 列植於庭, 各錄其名色形性及蒔種養護之方, 名之曰草木花卉之譜. 上祖詩騷, 下採俗方, 中參百氏之論, 而總齊之於己意, 博而能精, 詳而不雜.”

4 朴齊家, “百花譜序”, 『貞菴閣集』 卷1. “方金君之徑造花園也, 目注於花, 終日不瞬. 兀兀乎寢臥其下, 客主不交一語.”

생산의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지적하였다.⁵ 이 연구는 일상적 삶 속에서 사물의 역할과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두루미 키우기가 단순한 유희나 오락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조선 후기 원예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⁶ 이에 본고는 지식인의 지적 탐구를 촉발하는 화훼라는 구체적 사물의 역할과, 텍스트 차원을 넘어서는 일상적 지식 실천으로서의 학문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후기의 화훼 지식의 생산이 고립된 개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예 취미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지식인 관계망의 작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과학 지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시사하듯, 지식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얹힌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성되고 안정화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은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 생산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의 맥락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⁷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조선 후기 원예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지식 실천의 양상을 “교유(交遊)”라는 행위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유는 조선 후기 정치적·학문적·신분적·혈연적 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된 지식인 관계망과 그 결속 및 교류 방식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교유는 단순한 개인 간 혹은 집단적 교류를 넘어, 지식인 사회에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며, 화훼 지식의 사회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토대와 물질적 자원의 형성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 유럽의 과학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16-18세기 유럽에서는 “편지 공화국(republic of letters)”을 중심으로 서신 교환과 텍스트 검토를 매개로 한 범유럽적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학문적 진리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의 규범 위에서

5 Jung Lee, “Cranes, Cultivating a New Knowledge Practice in Late-Chosŏn Korea: Knowledge Transformations Connected by Things,”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8:1 (2024), 47-69.

6 이정, “물질, 삶과 만나는 변방의 낯선 과학,” 『역사학보』 247 (2020), 489-512.

7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1-17.

작동하였다.⁸ 또한 17세기 영국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핵심으로 하는 “의례(civility)”가 “신사(gentleman)” 정체성과 결합하여 과학 활동의 신뢰성(credibility)을 보증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고, 한편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상인·의사·박물학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식물 상품, 임상 사례, 여행 보고 등을 통해 유통된 정보를 경험에 대한 “신임(trust)”에 기반하여 수용함으로써, 지식의 순환과 재생산이 이루어졌다.⁹ 이와 같은 논의는 지식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규범 속에서 형성되고 유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유교 사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교유 네트워크에서 지식의 유통과 생산을 추동하는 기제가 이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원예 영역에서 나타나는 화훼 지식 생산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원예 활동과 화훼 연구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화훼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유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선 후기 지식인 네트워크의 구조와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 방법에 입각하여,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인의 단체 정원 유람, 화훼의 증여와 교환, 그리고 복경 화초포 탐방이라는 세 가지 원예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층위에서 교유와 화훼를 매개로 한 지식 실천의 전개 양상과 그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의 층위에서 18-19세기 조선 지식인은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문예적 취미를 매개로 원예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훼 지식은 교유의 기제를 통해 유통과 재생산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축적, 확대되었다. 둘째, 물질적 층위에서 화훼 분재나 종자와 같은 실물과 그에 수반된 지식은 교유, 특히 문예 모임이나 일상적 교류를 통해 이동하였다. 아울러 지식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원예 관련 시문과 여행기 등 교유의 텍스트 산물 역시 화훼 지식을 담지

8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강주현 옮김, 『편지 공화국: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연결한, 가장 은밀하고도 위대한 연대』(21세기북스, 2021) 등이 있다.

9 근대 유럽에서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과학 지식 형성의 기제에 관한 연구로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을 제시한 Steven Shapin, *A Social History of Truth: Civility and Scien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와 Harold J. Cook, *Matters of Exchange: Commerce, Medicine, and Science in the Dutch Golden 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가 대표적이다.

하는 매체이자 지식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매개물로 기능하였다. 셋째, 공간적 차원에서 정원, 모임의 장소, 연행 노정 등 구체적 공간은 지식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이한 작동 맥락을 제공하며, 화훼 지식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고는 교유라는 네트워크의 작동 기제와 화훼라는 구체적 사물의 역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조선 후기 원예를 단순한 문화 현상이나 개별적 지적 활동의 산물로 환원하지 않고, 지식인 집단이 일상적으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한 교유망 속에서 물질적 실천을 매개로 화훼 지식을 심화, 확장해 나간 역사적 과정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근세 과학사, 지성사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해석 경로를 제시할 것이다.

2. 단체 정원 유람과 문예 모임을 통한 화훼 지식의 확산

조선 후기 원예 문화의 성행은 다양한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정원, 혹은 화원이라는 공간의 활발한 조성과 유람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어문학이나 조경학의 관점에서 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식인의 취미 활동과 문예 창작, 정원의 구조와 구성 요소, 그리고 그에 반영된 문예적 성향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¹⁰ 그러나 조선 후기의 정원은 단순히 완물적 경향에 기반한 개인적 공간에 그치지 않았다. 정원은 다양한 화훼가 집적되고, 그 형태·품종·재배법에 관한 정보가 응축된 체험의 장으로서, 유람을 통해 지식인이 화훼 지식을 직접 체득하는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정원은 지

¹⁰ 심경호, “화원에서 얻은 단상 - 조선후기의 화원기”,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1), 89-132; 안대희,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 조선 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2004), 111-138; 송희경, “조선후기 정원아회도 연구”, 『한국문화연구』 6 (2004), 193-223;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2005), 47-54; 심우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 『한국실학연구』 12 (2006), 91-120; 송희경, “정원 속의 작은 정원 - 조선후기의 盆景애호와 園林畫의 분경”, 『동방학』 17 (2009), 401-440; 송희경, “연못이 있는 정원 - 조선후기 園池·園林畫의 유형과 그 함의”, 『온지논총』 22 (2009), 389-426; 임의제·소현수, “아회도(雅會圖)에 나타난 조선후기 원림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2014), 46-57; 김동현·최종희, “시(詩)·서(書)·화(畫)를 통해 본 18-19세기 한양(漢陽)의 원림 향유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2 (2015), 36-48; 김정화, 앞 논문, 68-101.

식인 교유의 핵심 무대로도 기능하였다. 즉 정원은 단체 유흥의 장소이자 집단적 학습의 현장이 결합된 공간으로서, 화훼에 관한 지식 실천이 밀도 높은 교유 네트워크의 작동 속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중심 거점이었다.

조선 후기 정원은 대체로 개인 소유의 공간이었으나, 유람객에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성은 무엇보다 정원 소유자와의 인적 관계를 매개로 형성되었다. 예컨대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1783년에 처남인 오대익(吳大益, 1729~?)의 소개를 통해, 그의 조카 오숙(吳瑋, ?~?)이 백문(白門)에서 조성한 정원을 방문하여 유람하였다.¹¹ 또한 이익의 아들 이용휴(李用休, 1708~1782)는 그와 종형제 관계인 이함휴(李咸休, 1698~1770)가 소유한 경기도 포천의 월원(栗園)을 유람하였는데, 이 정원은 이함휴가 백부 이서(李潁, 1662~1723)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¹² 이와 같이 정원 유람은 친족 관계를 포함한 복합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적 관계에 기반한 정원 접근성과 교유의 작동 방식은 유박의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8세기 후반 유박은 황해도 배천 금곡에 백화암(百花菴)이라는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용휴¹³, 채제공, 이헌경(李獻慶, 1719~1791), 목만중(睦萬中, 1727~1810), 정범조(丁範祖, 1723~1801), 우경모(禹敬謨, 1744~?), 유금(柳琴, 1741~1788), 유득공(柳得恭, 1748~1807) 등에게 시문을 청하였다.¹⁴ 이들은 모두 당대 정치적·학문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백화암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거나, 유박과 개인적인 면식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박은 자신의 관계망을 매개로 이들에게 백화암을 위한 시문 창작을 요청함으로써 정원의 이미지와 명성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¹⁵

¹¹ 蔡濟恭, “遊吳園記”, 『樊巖集』 卷35.

¹² 李用休, “栗園幽居記”, 『惠賓雜著』 卷11.

¹³ 李用休, “題花庵花木品第後”, 『惠賓雜著』 卷5; 이용휴 지음, 조난관·박동욱 옮김, “寄題百花菴”, 『해환 이용휴 시전집』 (소명출판, 2002), 152-154.

¹⁴ 이들 시문은 각각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서지는 다음과 같다. 蔡濟恭 “萬花齋記”, 『樊巖集』 卷35; 李獻慶, “百花菴記”, 『艮翁集』 卷20; 睦萬中, “百花菴記”, 『餘窩集』 卷13; 丁範祖, “寄題柳斯文百花菴”, 『海左集』 卷8; 禹敬謨, “題金谷柳處士璞百花菴”, 『白潭集』 卷1; 柳琴, “百華菴賦”, 『幾何室詩藁略』; 柳得恭, “金谷百花菴上梁文”, 『冷齋集』 卷13. 이들 자료의 정서본은 유박 지음, 정만·김영은·손규익 외 옮김, 『화암수록: 꽃에 미친 선비, 조선의 화훼백과를 쓰다』 (휴머니스트, 2019) 부록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유박은 관직에 나아간 적은 없었으나, 소복계 집안 출신으로 당시 체제공을 중심으로 한 남인계와 정치적 합류 및 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같은 문화 유씨 출신의 유득공과 유금 등을 포함한 노론계와도 혈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¹⁶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백화암 관련 시문을 매개로 지식인들과의 인적 관계를 구체화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교유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박의 백화암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교유망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지식인들이 인식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접근성의 증대는 단순히 정원 유람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훼 지식의 습득 기회를 동시에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목만중은 유박을 직접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꽃을 많이 보아 그 품격을 구별할 수 있고, 꽃을 깊이 사랑하여 반드시 그 성정을 잘 알고 있을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만일 백화암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싶다고 언급하였다.¹⁷

나아가 교유 관계를 통해 확대된 정원 유람의 기회는 화훼 연구와 지식 창출의 중요한 조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교유 관계를 맺고 있던 신위(申緯, 1769~1845)의 정원에서 “홍두(紅豆)”라는 관상 식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¹⁸ 신위는 연행 중 청나라 문인 옹수곤(翁樹崑, 1786~1815)에게서 홍두를 얻어 자신의 정원에 심었고, 이유원은 이를 자세히 관찰한 뒤 왕유(王維)의 시에 등장하는, 남방에서 자라 그 리움을 상징하는 “홍두”로 파악하였다. 그는 나아가 『군방보(羣芳譜)』에 기록된 “홍두”가 “장마철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가지 끝이 산호와 같고 콩이 붉고 아름다워 사랑스럽다”고 서술된 점을 근거로, 문헌 속 “홍두”와 왕유 시 및

¹⁵ 정민, “『花庵九曲』의 작가 柳璞(1730~1787)과 『花庵隨錄』”, 110.

¹⁶ 유박의 가문은 소복계로, 이들은 대체로 남인으로 흡수되었으며, 유박 일가 또한 사천 목씨나 조계 정씨 등 남인 가문과 혼인 등으로 얽혀 있었다. 또한 유박은 가계상 유득공의 7촌 당숙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유박 지음, 정민·김영은·손규의 외 옮김, 앞 책, 17-18 참조.

¹⁷ 陸萬中, “百花菴記”, 『餘窩集』 卷13. “余不識柳君和瑞, 而聞其流落西海上, 蒔花滿庭, 自號曰百花菴, 殆隱於花者也. 見花多則必能別其品格, 愛花深則必能識其性情, 余願從柳君而問之.”

¹⁸ 李裕元, “紅豆”, 『林下筆記』 卷32, 『句一編』. “申紫霞園中種紅豆, 有兩大叢, 星原所贈也. <羣芳譜>所載, 梅雨時開花結實, 枝頭如珊瑚, 豆紅嬌可愛. 此與王右丞詩紅豆生南國之紅豆不同也.”

신위 정원의 식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이유원은 교유 관계를 계기로 이루어진 정원 유람을 통해 해당 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 생물학적 특징과 문헌적 의미를 교차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식 실천은 “옹수곤·신위·이유원”으로 이어지는 교유망의 작동과, 이에 기반한 정원 유람이라는 경험적 체득의 기제를 통해 가능하였다.

한편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원 유람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원 방문은 상당수 경우 교유 관계에 기반한 집단적 활동의 형태를 띠었다. 실제로 체제공이 서울 일대의 여러 정원을 유람할 때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 동행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장소	동행자
1783년 3월 10일	필문대 근처의 “조원”	목만중(睦萬中), 이정운(李鼎運), 심궤(沈逵), 유항주(俞恆柱), 윤상동(尹尙東)
1784년 윤3월 13일	“조원”	오대익, 이유경(李儒慶), 이혁주(李赫胄), 목만중, 채홍리(蔡弘履)
1784년	백문 안의 “오원”	오대익, 오숙, 목만중, 채홍리
1784년	용산 근처의 “이원”	목만중, 오대익, 채홍리, 권사언(權師彦)
1784년	성북 북저동	목만중, 이정운, 이익운(李益運), 채서공(蔡敍恭), 채홍선(蔡弘選), 채홍원(蔡弘遠)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제공의 정원 유람은 일정한 인적 구성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의 문인인 이정운·이익운·유항주를 비롯하여, 체제공과 친족 관계에 있던 오대익·채서공·채홍선·채홍원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체제공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목만중·권사언·채홍리 역시 정원 유람에 반복적으로 동행하며 상호 교유를 이어갔다. 이처럼 체제공을 매개로 조직된 정원 유람은 당시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했던 남인계를 일정 부분 결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²⁰, 다양한 인적 관계에 기반한 교유를

¹⁹ 왕유 시에 등장하는 “홍두”의 실체를 두고 “해홍두(海紅豆, 학명: *Adenanthera microsperma*)” 혹은 “상사자(相思子, 학명: *Abrus precatorius*)”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군방보』에 언급된 “홍두”는 관상식물인 “해홍두”나 “상사자”와 달리 곡물인 “적소두(赤小豆, 학명: *Vigna angularis*)”의 별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²⁰ 체제공이 교유와 시회 등 문예적 활동을 통해 남인 문단을 통합하고 남인을 정치적으로 결속시킨 양상에 대해서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진단학보』 101 (2006), 359-390 참조.

통해 정원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화훼를 둘러싼 유흥 활동과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작동하였다. 다시 말해, 복합적인 인적 연대 위에 구축된 교유망은 원예라는 공동의 문예적 취향과 정원 유람이라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 집단 결속과 학문적 교류를 촉진했을 뿐 아니라, 화훼 지식 실천의 확대 가능성과 그 기반을 함께 마련하였다.

이러한 단체 정원 유람은 지식인과 화훼, 지식인과 지식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현장 견습의 기제로 기능하면서, 화훼 지식의 유통과 재생산을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촉발하였다. 첫째, 정원 유람은 단순한 시각적 관찰을 통한 지식 습득을 넘어,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상적 대화를 매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예컨대 유득공은 연암 그룹으로 묶이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등과 함께 1770년 봄 서울 북쪽에 위치한 삼청전(三淸殿) 옛터를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수십 종의 야채와 풀을 채취해 와 박식함으로 이름난 이덕무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 명칭과 종류를 상세히 기록하였다.²¹ 또한 조冕鎬(趙冕鎬, 1803~1887)는 1883년 봄 삼청동 일대를 유람하던 중 십여 종의 분재가 가꾸어진 정원을 방문하여, 구면인 정원 주인 김학진(金學鎭, ?~?)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화훼의 명칭과 특징을 확인하였다.²² 이와 같이 정원 유람 과정에서 동행자나 정원 관계자 등 인물과의 친분, 혹은 사회적 연대는 한정된 공간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였다. 결국 화훼에 관한 지식 실천은 교유 관계에 기반한 집단적 유흥과 상호 소통의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는 단체 정원 유람이 지식 생산의 중요한 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조선 후기 성행한 시사(詩社)와 아회(雅會)와 같은 지식인 모임은 화훼 감상으로 대표되는 취미 생활을 문예 창작과 향유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섭하는 자리였으며²³, 동시에 지식인 간 결속과 교유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

²¹ 柳得恭, “春城遊記”, 『冷齋集』 卷15. “庚寅三月三日, 與燕巖·靑莊入三淸洞, 渡倉門石橋, 訪三淸殿古址, 有廢田, 百卉之所茁. 班而坐, 綠汁染衣. 靑莊多識菜名, 余擷而問之, 無不對者, 錄之數十種. 有是哉, 靑莊之博雅也.”

²² 趙冕鎬, “遊玉壺亭記”, 『玉垂集』 卷30. “三月上旬, 天氣暢和, 雲物可人 … 渡北溪. 溪上一人家無門, 列有十許種盆供 … 一樵鬻人, 年可五十, 自內而出, 見吾喜甚, 兩手相接而進曰: ‘小人金學鎭也.’ 面則熟而名則生, 方締思, 學鎭曰: ‘小人字曰敬習也.’ 始乃大悟, 曰: ‘汝其花儉金敬習也?’ 欣然就盆下而坐, 問此何卉, 此何草也.”

²³ 조선시대 문인들이 계절에 따라 꽃구경과 음주, 작시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사회를 전개한 양상에 대해서 이중목, “조선 선비의 꽃구경과 운치 있는 시회”, 『한국한시연구』 20 (2012),

이었다. 이러한 문예 모임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체 정원 유람이나 집단적 화회 감상과 같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채제공의 경우, 그가 정원 유람을 빈번히 전개하던 1770-1780년대에 종남사(終南社)와 번계시사(樊溪詩社)를 주도하였는데, 그의 정원 유람에 참여한 인물들 역시 대부분 이 시사에 속한 구성원들이었다.²⁴ 한편 꽃구경은 시사나 아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원 역시 이러한 모임의 핵심 장소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의 화회는 지식인 문예 창작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죽란시사(竹欄詩社)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죽란시사는 1790년대 서울 명례방의 한 정원에서 결성된 모임으로, 「죽란시사첩서(竹欄詩社帖序)」에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사꽃이 피면 한 번 모인다.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서늘해지면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러 한 번 모인다. 국화가 피면 한 번 모이고, 세월에 매화가 꽃방울을 터트리면 한 번 모인다”고 약조되어 있듯이, 정원 내 화회 감상은 모임의 주요 목적이자 핵심 계기로 기능하였다.²⁵ 특히 죽란시사에서는 국화를 중심으로 한 감상과 문예 창작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는데²⁶, 정약용은 국화의 재배와 관찰에 깊이 몰두하였을 뿐 아니라²⁷ 시사 구성원들과 함께 정원의 서재에 촛불을 설치하여 국화의 그림자를 비추고 이를 소재로 시를 짓는 등, 감상과 창작을 결합한 실천을 전개하였다.²⁸

299-335 참조.

²⁴ 채제공의 시사 활동과 주요 교유 대상에 대해서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보』 26 (2012), 101-127 참조.

²⁵ 丁若鏞, “竹欄詩社帖序”. 『與猶堂全書』 卷13. “會既成, 與之約曰: 杏始華一會, 桃始華一會, 盛夏蒴果既熟一會, 新涼西池賞蓮一會, 菊有華一會, 冬大雪一會, 歲暮盆梅放花一會.” 물론 화회 감상을 매개로 한 유흥과 문예 모임이 시사 결성과 활동의 주요 동기였지만, 죽란시사가 18세기 말 남인 관료들의 결속과 교류를 도모한 일종의 정치적 결사였다는 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김봉남, “竹欄詩社의 再照明”, 『한문학보』 26 (2012), 36-52; 안대희, “다산 정약용의 竹欄詩社 결성과 활동양상 - 새로 찾은 竹欄詩社帖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3 (2013), 109-124.

²⁶ 죽란시사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국화를 매개로 전개한 감상 및 시가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신익철,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 원경도 문학의 수용 양상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6 (2008), 129-159 참조.

²⁷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편, 『천명 다산의 하늘: 정약용 250』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12), 112. “昔在竹欄, 顧性愛菊, 歲治菊數十盆, 夏而觀其葉, 秋而觀其葩, 畫而觀其姿, 夜而觀其影.”

²⁸ 丁若鏞, “南阜尹參議墓誌銘”, 『與猶堂全書』 卷16. “昔在先朝甲寅之秋九月中旬, 南阜尹公

이와 같은 원예를 매개로 한 문예 모임은 기존 교유망에 속한 지식인들이 유흥의 실현을 계기로 문예 창작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화훼 지식의 축적과 확산, 그리고 재생산에 관여하게 하는 학문적·실천적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장에서 화훼와 관련된 지식은 사적 친목의 강화와 문화 향유라는 공동의 실천 속에서, 감수성의 공유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하였다. 예컨대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은 1834년 일본에서 들여온 희귀한 국화 품종 “백운타(白雲朵)”를 구입한 뒤, 1836년 “동우(洞友)”들과 함께 이를 감상하기 위한 “백운제일회(白雲第一會)”를 조직하였다. 이는 도성에서 해당 품종을 접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존재와 특징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감상 모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다.²⁹ 주목할 점은 심능숙에게 백운타 감상이 단순한 심미적 향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백운타를 처음 들여왔을 때 「백운타기(白雲朵記)」라는 감상문을 작성하여, 이 국화의 줄기·잎·꽃·꽃자루 등 각 부위의 형태를 세밀하게 서술하고, 물 주기와 꺾꽂이 등 재배 방법까지 시험하여 기록하였다.³⁰ 감상문의 형식을 띤 이 글은 서정적 표현보다는 화훼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의 회람만으로는 해당 화훼에 대한 인식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능숙은 “백운제일회”라는 문예 모임을 조직하여 백운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단체 유흥과 대면 경험을 매개로 한 화훼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세기 들어 확산된 수선화 감상 풍조를 들 수 있다. 조면호에 따르면, 19세기 초반 수선화를 재배하던 인물들 가운데 이용수(李龍秀, 1776~?)와 박종훈(朴宗薰, 1773~1841)이 특히 재배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수선화를 주제로 빈번히 아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다.³¹ 이와 같은 모임의 전개와 그 과정에서 창작된 시문의 회람은 수선화 재

携友五六人，登白雲臺絕頂，歡傲詠歌，旁若無人，鋪實與焉。歸而設菊影之燭於竹欄書屋，會者八九人，南阜主盟。酒既酣，各爲詩數十。”

²⁹ 沈能淑, “百雲第一會序”, 『後吾知可』卷5. “貴花之三年, 都人猶多未見者. 旣名花, 且新來也, 故旣記焉, 且詩焉. … 但知有籬下物, 而不知天壤間有此白雲一朵, 非徒爲昔人之恨, 抑爲今人之恨. 因與洞友酌以賞之, 名茲會曰白雲第一會, 以廣他日之會. 吾將與白雲老矣.”

³⁰ 沈能淑, “百雲朵記”, 『後吾知可』卷4. “歲甲午從日本始購一種而至, 莖紫而長, 葉肥而類五臺菊. … 花形大如牡丹圓平, 而厚百束千重. … 花蒂垂發. … 花葉峻長. … 灌水增艷, 耐久色愈白, 插地生根發花, 花愈大, 此花之性也.”

³¹ 조선 후기 정약응을 비롯한 문인들의 화훼시는 단순한 애정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찰

배와 감상 풍조의 확산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수선화 관련 지식이 지식인 교유망 속에서 유통, 순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수선화 재배법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문예적·유흥적 취향을 매개로 이루어진 정보 교환은 화훼 지식의 축적과 체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실천적 조건이었다. 조면호 역시 이러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재배법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는 자기 그릇에 물을 담아 수선화를 씻는 방법, 아침에 분재를 처마 밑에 두어 햇볕을 쬌는 방법, 흙을 사용하지 않고 호남 부안현(扶安縣)에서 나는 채색 자갈을 뿌리 위에 깔아 펼쳐 뿌리를 안정시키는 방법 등을 익혔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정보를 다시 시구로 엮어 회람함으로써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교유망 속에서 재확산하고자 하였다.³² 이처럼 지식인의 문예 모임을 주요 통로로 확산된 수선화 재배법은, 19세기 중반 이규경이 편찬한 방대한 잡기류 저술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반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제된 형태로 정리되었다.³³

이와 같이 일정한 교유 관계에 기반하여 꽃구경이나 정원 유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식인의 문예 모임은 단순한 화훼 감상이나 작시의 장을 넘어, 화훼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작동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화훼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관련 정보의 획득을 위한 실천적 기회와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신분적 연대와 문화적·경험적 지향을 공유한 지식인들이 단체 유흥과 문예 창작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인 시문 등 텍스트의 회람을 통해 화훼 지식의 순환과 재생산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였다.

과 재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화훼에 대한 주관적 정서와 객관적 태도, 이른바 박물학적 지식을 결합하고 있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고연희, “정약용의 花卉에 대한 관심과 花卉詩 고찰”, 『동방학』 7 (2001), 46-54.

³² 趙冕鎬, “謔水仙”, 『玉垂集』 卷31. “逮至癸酉甲戌之歲, 花風始振. 李紆館龍秀尙書, 朴荳溪宗薰相國, 養之甚得其法. 其雅集也, 詩多名句, 膾炙人口. 自此詩家人無此花, 輒無色焉. 殆家水仙而戶水仙, 單葉千葉, 猗猗可愛. 甌斗注水而洗濯之, 朝簷向旭而曬陽之, 以扶江采石護根而鎮安之. 曩年冕之詩‘水仙欲上扶江石, 留使人間說玉垂’者是也.”

³³ 李圭景, “水仙花瓣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3. “冬月以磁盆盛水, 沈水仙, 以湖南扶安縣彩石江彩石片, 鎮其根, 雖無點土亦生.”

3. 교분 속 화훼와 그 지식의 이동과 교환, 그리고 재구성

정원 유람 외에도 조선 후기 화훼 지식은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지식인의 화훼 실물 및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매개로 유통되고 재생산되었다. 다만 특정 공간에 집약된 교유망의 작동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예적 교류 및 체험과는 달리, 이러한 수집 활동은 보다 확장된 관계망과 일상적 상호작용의 장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화훼와 그에 관한 지식의 장거리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화훼와 지식의 이동과 유통, 그리고 지식 실천의 전개를 촉진한 기제는 지식인 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왕래와 정서적 교환에 있었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비교 가능한 또 다른 경로로서 화훼 매매가 지식 생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식인의 화훼 수집에서 매매는 가장 직접적인 획득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관련 기록이 풍부하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 원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화훼의 공급과 매매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⁴ 화훼 매매는 상거래라는 인적·물적 유통 방식을 통해 화훼 실물과 관련 정보의 실질적 이동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 측면을 넘어, 매매에 관여한 주체와 그 운영 방식에 주목할 때, 그것이 화훼 지식 생산과 맺는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옥(李錫, 1760~1813)은 조선 후기 한양의 화훼 점포의 존재와 운영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사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는 화훼 매매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화훼 매매 과정에서 작동한 지식 생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의 화훼 매매는 특정 시장에 집중된 대규모 거래라기보다, 꽃장수의 개인적 채배와 판매 활동에 기반한 산재적·개별적 양상이 강하였다. 이옥이 조선에는 꽃 시장[花市]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화훼 거래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전이나 중국과 같은 대규모 전문 시장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34 조선 후기 화훼 매매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를 다룬 바 있다. 정민, 앞 논문, 53-60; 윤지안, 앞 논문, 52-56; 김정화, 앞 논문, 68-72 등.

의미한다. 대신 한성의 가장자리나 구석진 곳에서 퇴임한 노년의 아전들이 화훼를 재배하고 이를 생업으로 삼아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³⁵ 강이천(姜彝天, 1769~1801)의 「한경사(漢京詞)」에서 “성북과 성동에 꽃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일 년 내내 꽃을 피우고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³⁶고 묘사한 기록은, 당시 한성 외곽에 산재한 꽃장수들의 활동과 화훼 매매의 지속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화훼의 희귀성과 접근 난이도에 따라 가격과 유통 방식이 크게 달랐다.³⁷ 이옥의 기록에 따르면, 소나무·대나무·매화·복사꽃·국화와 같이 비교적 흔한 식물은 성곽 주변의 꽃장수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반면 동백·치자·영산홍·왜적촉·종려나무 등과 같이 기후나 토양 조건상 한양이나 조선에서 쉽게 재배되지 않는 희귀 품종은, 전문 인력을 통해 남방이나 국외에서 들여오는 보다 사적이고 비용이 큰 경로를 통해 공급되었다.³⁸ 이러한 품종들은 일반 가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였으며, 수선화·소철·종려나무 등은 조선 후기 사치품으로 간주되었다.³⁹ 이와 같이 한성 내 꽃장수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만 제한된 종류의 화훼만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화훼 매매가 일정 범위에서 화훼 실물과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품종의 확보와 지식의 축적을 담보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셋째, 꽃장수의 화훼 판매는 상업 활동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며, 그 핵심 수단은 화훼 재배 기술의 독점에 있었다. 이옥이 전한 일화에 따르면, 한 무인이 재상에게 바

35 李鉉, “談花”, 『白雲筆』筆之戊, “我國無花市, 故不曾有賣花者, 而有弼雲臺下樓閣洞及桃花洞·淸風溪等處, 或有吏胥之老而閑且貧者, 多從事於花. 既寓其樂, 仍作生涯.”

36 姜彝天, “漢京詞”, 『重菴稿』冊1, “城北城東業賣花, 祇應相續四時開.”

37 이러한 상품성을 획득한 화초를 중심으로 등급화와 가격 차이를 수반하는 소비 양상에 대해, 윤지안은 이를 고급형 화초와 보급형 화초로 구분되는 공급의 이원화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윤지안, 앞 논문, 52-56.

38 李鉉, “談花”, 『白雲筆』筆之戊, “故若梅花之托奇查者, 菊花之三色共一盆者, 石榴之高而繁結者, 盆竹·盆松·盆桃之類, 往往出而貨之, 價亦不甚高. 如冬栢·梔子·映山紅·百日紅·棕櫚·倭躑躅·柚子之屬, 南方之民, 擔負船運, 灌輸乎權貴之門, 非市而可得者也.”

39 柳璞, “花木九等品第”, 『花庵隨錄』, “近來諸公子都尉第宅, 爭尙蘇鐵·華梨·櫻欄, 艷慕遠產, 取冠庭實. 而肆然以梅菊, 號爲亞品.”; 徐有渠, “卉類鐵蕉”, 『林園經濟志』卷21, 『藝畹志』卷4, “東人亦有購得於日本者, 而價重, 非有力者不能致也.”

칠 희귀한 매화를 구하고자 한성 일대를 두루 수소문한 끝에, 매화를 잘 기르는 한 노인의 집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⁴⁰ 이 일화는 당시 화훼의 유통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재배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이들 또한 극히 소수에 불과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은 곧 꽃장수가 일반적인 화훼 소비자나 호사가와는 구별되는, 고도의 재배 기술을 갖춘 전문 생산자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임진(任鎭, 1560~1611)의 시에서도 한성 동쪽의 꽃장수 노인이 “본래 흰 것은 희게, 붉은 것은 붉게 피게 하고 … 그의 처는 접붙이기에 능하며, 그의 첩 또한 재배에 능하여 사시사철 꽃을 피운다”고 묘사되어 있다.⁴¹ 이는 화훼 재배와 판매가 일종의 가족 단위 산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 구성원 전체가 화훼의 품종 관리, 심기, 접붙이기, 이식 등 다양한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실행하는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으로서, 쉽게 공개되거나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강이천은 여항에서 국화를 재배, 판매하던 한 노인의 사례를 전하면서, 그가 국화의 개화 시기와 꽃의 크기·색채를 임의로 조절하고, 한 줄기에서 서로 다른 색의 꽃이 동시에 피도록 만드는 등 뛰어난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한 가문에 기이한 국화를 공급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비법은 후대에 전수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한다.⁴² 이러한 사례는 화훼 재배 기술이 상업적 비밀로서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매매 과정에서 실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통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거래를 통한 화훼 실물과 정보의 획득은 품종의 다양성 확보와 재배 기술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한성 외 지방에서는 원예 문화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꽃장수의 존재나 화훼 매매가

⁴⁰ 李鉉, 『談花』, 『白雲筆』筆之戊. “有一武人, 新結時宰, 竭其力, 無以媒寵, 適宰問梅, 卽自言家有梅, 可卽致. 遂出而訪之遍城中, 無可貨者. 至夕, 聞西城僻巷, 有姓李者, 老而蓄梅. 往叩之, 盛言有苦癖於梅, 請玩之. 旣開閱, 有二盆, 皆稀品也.”

⁴¹ 任鎭, 『賣花翁』, 『鳴皋集』卷7. “賣花翁在洛城東, 常養芳菲千百叢. 春來一一次第開, 白者能白紅者紅. 移根小檻藥添彩, 行賣二月三月中 … 妻能接花妾種花, 數口契潤皆東風. 應願天公四時春, 日日賣花花不空.”

⁴² 姜彝天, “梨花館叢話”, 『重菴稿』冊3. “中古閭巷有金老翁者, 善種菊, 能使早開, 能使晚開, 能使短才數寸而花小如瓜, 色鮮姿嬌, 能使長過丈餘而花絕大, 又能花色有如漆者, 又於一莖花雜開衆色. 公子貴宰爭買之, 老以此資生. 方秘後無有傳之者.”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업적 경로를 통한 화훼 수집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⁴³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선 후기 다수의 지식인은 상거래보다 다른 지식인과의 교분에 기반하여 화훼 실물과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는 금전 교환이 특징인 상업적 거래와 달리, 밀접한 교유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감정적·문화적 교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분에 기반한 화훼의 이동과 교환은, 조선 후기 일상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식인이 화훼를 대상으로 전개한 지식 실천의 핵심적 인적·물적 네트워크로 기능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에서는 직접 방문이나 서신 왕래 등 일상적 교류를 통해 희귀한 화훼 품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유희(柳僖, 1773~1837)는 지인 조운성(趙雲成, 1761~?)의 부탁을 받고 서신을 보낼 때 모란, 왜홍(倭紅) 즉 왜척죽, 수국 등 세 가지 화훼를 구해 함께 전달하였다.⁴⁴ 또한 이유원은 평소 교유하던 이여해(李汝諧, ?~?)와 송정옥(宋鼎玉, 1801~?)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희귀한 흰 모란[白牡丹]을 증여받아 이를 세심히 재배하였다.⁴⁵ 이러한 화훼 실물의 전달은 지식 실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분에 기반한 화훼의 증여와 교환은 지식인 간 교유 관계의 직접적 산물로서, 매우 사적이고 정서적인 성격을 지닌 행위였다. 동시에 이는 상대방에게 화훼 실물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기반한 관찰과 재배 실천, 나아가 화훼 연구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 품종의 경우, 이러한 교분에 기반한 유통이 사실상 핵심적인 획득 경로로 기능하였다. 둘째, 지식인 간의 화훼 교환은 단순한 물질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재배 실천과 관련 지식의 공유를 수반하는 경우

43 이옥은 한양과 시골의 원에 풍조 차이에 대해 비교, 묘사한 바 있다. 한양의 백성은 가난해도 마당에 벽오동·금봉화·석죽·화계관화 등 화초를 심는데 비해, 시골 사람들은 담배나 박을 심거나 아예 묵혀 버려도 화훼를 심지 않는다고 하였다. 李鉉, “談艸”, 『白雲筆』 筆之癸. “漢陽小民之家, 家既湫隘, 人亦清貧, 每見屋角種一年碧梧桐一樹, 高出板牆, 牆下聚拳石, 築小塔, 塔上所種者, 一年柿·五色金鳳花·鄉荔支·石竹花·鷄冠花四五本. 牆頭壅土, 種唐艸椒數根. 開花結實, 亦自有瀟灑意. 鄉民則不然, 屋旁隙地, 種菸·種瓜, 雖或陳廢, 亦不曾插一艸花. 此固華實之所由分, 都鄙之所由別也.”

44 柳僖, “與趙文祥雲成 庚申三月初三日”, 『文通』 卷12, 『方便子書牘』 1. “所托嘉卉, 適得三種, 仰呈. 只願執事, 風流如牡丹, 文萼如倭紅, 耐久如水菊. 栽之之時, 牡丹不踏且不留宿土, 倭紅反是, 水菊空澁地.”

45 李裕元, “白牡丹”, 『旬一編』. “此花至貴, 余曾見於李汝諧宅, 移來一窠, 春旱枯死. 又得一本於坡山宋玉壺莊上, 培護若海中珠樹.”

가 많았다. 위의 사례에서 이유원은 흰 모란을 두 차례 얻어 재배를 시도하였는데, 첫 번째 재배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재배 기술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유희는 화훼를 선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식물의 성질과 적합한 토양 등 재배 정보를 함께 전달하였다.

이처럼 지식인 간에 이루어진 화훼와 그에 관한 지식의 교환은 교분이라는 감정적 소통의 행위를 매개로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유통 과정에서 지적·물질적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검증되었다. 그 결과 화훼 지식은 단순한 전달에 머무지 않고, 지속적인 순환, 반복적인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되고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교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화훼와 지식의 이동 양상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 후기 수선화의 확산 경로를 통해, 교분에 기반한 화훼 유통의 특징과 그 지식 실천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수선화를 구입하여 재배했으나, 이후 18세기 동안에는 수선화가 조선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전후에 이르러 비로소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진다.⁴⁶ 이 시기 조선 지식인의 수선화 입수 경로는 대체로 중국으로부터의 구입에 의존하였다. 1840년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도에 자생하는 수선화의 존재를 언급한 이후에도⁴⁷ 실제로는 여전히 중국을 통한 수입이 주요 경로로 기능하였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외래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차적 확산, 즉 교유 관계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이었다. 19세기 초 한양에서의 수선화 확산은 1800년 북경에서 수선화를 들여온 이기양(李基讓,

46 이종목, “조선후기 연행과 화훼의 문화사”, 『한국문화』 62 (2013), 107-114, 120-125.

47 金正喜, “與權彝齋” 5, 『阮堂全集』 卷3. “然環漢擎四百里之間, 柑橙橘柚之嘉珍, 人所共知者. 外此奇木名卉, 葱青交翠, 舉皆冬青, 皆不能知名 … 水仙花果, 是天下大觀, 江浙以南, 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李裕元, “水仙花”, 『旬一編』. “濟州產水仙花, 秋史始知之. 取長如法, 不下江南種.”

48 이규경에 따르면 비록 북경의 수선화와 제주의 수선화가 함께 유통되지만 후자는 끝내 전파만 못하다고 하였다. 李圭景, “水仙花辨證說”. “我東非本無也, 生於耽羅, 而人未知爲何物也. 近者自燕購來, 仍爲俗尙, 以其俗尙, 故入耽羅者, 始知水仙. 而將種渡海, 遍于京師. 羅俗呼以水菰者, 根葉類菰而好生於水故也. 自耽羅來者, 終不如自燕來者, 此因風土之殊也. 燕種·羅種並行於世.”

1744~1802)이 그 구근을 주변 지식인들에게 분양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⁴⁹ 정약용은 교유 관계에 있던 이기양으로부터 수선화 구근 하나를 얻어 재배하였고⁵⁰, 이가환(李家煥, 1742~1801) 등 경화사족 가문에서도 이를 계기로 수선화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⁵¹ 또한 1828년 김정희는 평안감사로 있던 부친을 방문하던 중 과거 한양에서 얻은 수선화를 고려 자기 화분에 옮겨 심은 뒤, 이를 다시 남양주에 있던 정약용에게 선물하였다.⁵² 이와 같이 중국에서 유입된 수선화는 한양을 중심으로 교유 관계망을 따라 이동하며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본 기반의 화훼 유통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8세기 초 김창업의 수선화 입수와 재배 시도, 그리고 1800년 전후 이기양의 수선화 전래 및 전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이유원은 신위를 1812년 중국에서 수선화를 처음 들여온 인물로 인식하였다.⁵³ 이는 이기양을 통해 유통된 수선화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 원인으로는 재배 기술의 부족, 제한된 유통 경로와 높은 가격, 그리고 이기양 개인의 영향력 한계 등을 들 수 있다.⁵⁴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수선화 유통 자체를 저지했다기보다, 그것이 제한된 관계망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49 李學遠, “感事三十四章”, 『洛下生集』 冊18, 『觚不觚詩集』. “行理[理與李通]李水部[健陵己未, 李參判基讓以賀正使, 自燕京得水仙花種以來], 仙葩梁玉清[袁石公《瓶史》: ‘水仙比之梁玉清, 玉清, 嫦娥侍女名。’]”

50 丁若鏞, “水仙花歌 復次蘇韻”, 『茶山詩文集』 卷4. “庚申春, 苾庵李公回自燕京, 金繒無所私, 唯帶水仙花一根, 插之盆水. 余與少陵環坐賞玩, 流落以來, 朔南遠窺, 而此花亦已槁矣. 感念疇昔, 惻然有述.”

51 李學遠, “感事三十四章”. “向時餘種子, 今日遍京城. 瑪瑙菁華在, 銀臺面目生[花名金盞銀臺, 始見此花於錦帶館書案頭].”

52 丁若鏞, “秋晚金友喜香閣 寄水仙花一本 其盆高麗古器也”, 『茶山詩文集』 卷6. “仙風道骨水仙花, 三十年過到我家. 苾老曾携使車至, 秋史今移淇水衙.”; 일견에 따르면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이 1828년부터 이듬해까지 평안감사를 지내던 시기에 김정희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병환 중인 부친을 돌보았는데 이때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에게 약 처방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선화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해서 이철희, “추사 시 속의 꽃”, 추사박물관 편, 『추사가 사랑한 꽃』 (추사박물관, 2019), 268 참조.

53 신위는 1812년 겨울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 수선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조선에 수선화가 들어온 시조라고 자칭하였고, 이유원 또한 신위가 1812년 처음 수선화를 들었다고 하고 수선화 수입을 신위의 공으로 돌렸다. 申緯, “謝篠齋運餉寄水仙花”, 『警修堂全藁』 冊14, 『詩夢室小草』. “壬申冬, 余使燕回, 携水仙花, 此爲水仙東來之始, 自後出來.”; 李裕元, “水仙花”. “在昔壬申, 紫霞使燕, 冬回携來之, 此爲東來之始也.”

54 윤지안, “조선 후기 수선화의 유행과 쇠퇴”, 『인문과학연구』 27 (2018), 161.

다시 말해, 조선 후기 수선화의 확산은 하나의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져 나간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교유 네트워크를 통해 소규모로 병렬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교유 관계의 긴밀성과 범위는 각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식인이 속한 교유망의 밀도에 따라 화훼의 수집과 교환의 효율 역시 달라질 수 있었다. 예컨대 이기양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과는 별도로, 신위 역시 중국에서 직접 수선화를 들여와 이유원 등 주변 인물들에게 분양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도 김유근(金迪根, 1785~1840), 서기수(徐淇修, 1771~1834) 등 지식인으로부터 몇 차례 수선화를 얻어 재배하였다.⁵⁵ 이와 같이 19세기 이후 수선화의 확산은 소수의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지식인 집단 내부에서 선물과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복수의 네트워크를 통해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유 기반의 유통은 규모나 수량 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환을 통해 화훼 연구에 필요한 실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수선화와 같은 희귀하고 고가의 외래 품종은 그 특성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지식인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교유 관계가 화훼 유통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화훼의 이동과 교환은 단순한 선물 전달에 그치지 않고, 원예가 일상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의 지속적인 교유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래 화훼의 재배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19세기 후반까지도 수선화 재배는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⁶ 이 과정에서 재배의 재시도와 기술 검증을 위해 주변 지식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선화 실물을 교환받을 수

55 신위는 임오년(1822)에 김유근으로부터, 정해년(1827)과 신묘년(1831)에 서기수로부터 수선화를 받은 적이 있다. 申緯, “水仙花三絕句 爲黃山樞密賦”, 『警修堂全藁』冊10, 『花徑驛墨』. “敝齋清供水仙五本, 卽自黃山盆中解佩者.”; “謝徐篠齋吏部分餉水仙花十本”, 같은 책 冊18, 『北禪院續藁』; “謝篠齋運餉寄水仙花”, 같은 책 冊14, 『詩夢室小草』. “運餉手閑且運花, 雪天飛輓餉詩家 … 往歲壬午, 黃山尙書寄余水仙有書”

56 이종목은 신위가 몇 차례 수선화 뿌리를 구하는 것은 그가 수선화 재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이종목, “조선후기 연행과 화훼의 문화사”, 122). 그리고 1879년 조면호는 신위가 수선화를 전래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비결을 강구하지 못해 봄이 왔을 때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시를 지어 당시 수선화 재배법의 결핍으로 인한 재배 실패의 상황을 말해 주었다(趙冕鎬, “水仙絕句 十七首”, 『玉垂先生集』 卷21. “[養水仙甚難, 差失曬沐, 便已病死者多] … 柳條邊市市銀千, 東使輸來始幾年. 緣何不究開花訣, 每到春時一惘然.”).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 교류 관계에 기반한 네트워크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분의 작동에 따른 화훼 실물의 이동과 교환은 단순한 물질적 유통에 그치지 않고 화훼 관련 지식의 유통과 축적으로 이어지며, 이는 지식 순환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지식 실천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수선화의 경우, 1800년 전후 중국산 수선화가 조선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조선 지식인의 재배는 중국과의 환경 차이, 재배 기술이나 식물 생리학적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다.⁵⁷ 서유구와 이규경이 수선화 관련 지식을 저술로 정리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텍스트의 제한된 유통, 혹은 기록된 지식과 재배 실행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제 재배 현장에서는 기존 축적된 지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였다. 물론 재배의 성공 여부는 화훼 지식과 기술의 축적 정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해당 시기 화훼 지식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식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저술 활동이나 개별 지식인의 성공 경험뿐 아니라, 화훼 지식이 지속적으로 순환, 축적, 확장될 수 있었던 조건으로서, 교분에 기반한 일상적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 실천의 과정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선화의 유통 사례에서 보듯이, 지식인 간의 긴밀한 교류와 소통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화훼 지식의 축적과 실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면호의 기술에 따르면, 그의 스승 김정희와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은 모두 수선화를 잘 재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⁵⁸ 절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재배 기술을 익혔을 뿐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관련 지식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정희는 1840년 제주도에서 자생 수선화를 발견한 직후 권돈인에게 서신을 보내, 해당 식물의 존재와 생물학적 특징을 상세히 전달하였다.⁵⁹ 두 사람 사이의 일상적 소통이 단순한 정보

57 조선 후기 수선화 재배의 기술적 난제와 수선화 풍조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는 윤지안, 앞 논문 (2018), 179-197 참조.

58 趙冕鎬, “水仙絶句 十七首”. “霖齋, 秋史二公以善養水仙有名焉.”

59 金正喜, “與權霖齋”. “水仙花果, 是天下大觀. 江浙以南, 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花品絶大, 一朵多至十數花, 八九萼五六萼, 無不皆然. 其開在正晦二初, 至於三月, 山野田壟之際, 漫漫如白雲, 浩浩如白雪, 累居之門東門西, 無不皆然 … 又有 一種千葉者, 初開苞之時, 如菊花之青龍鬚. 與京洛所見千葉大異, 卽一奇品矣.”

전달을 넘어, 재배 실천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심상규(沈象奎, 1766~1838)는 김조순(金祖淳, 1765~1832)으로부터 수선화 구근 다섯 개를 얻은 동시에, “12월에 심어도 늦지 않다”거나 “자기 대접에 물을 담아 심는다”는 등 구체적인 재배법까지 전수받았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구근의 발아에 성공하였다.⁶⁰ 이때 김조순이 제시한 재배법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심상규의 재배 실천을 통해 다시 검증되었다. 나아가 심상규는 김조순에게 지은 시를 통해 해당 방법의 유용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지식은 교유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공유,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수선화에 관한 지식은 반드시 체계적인 텍스트로 정리되거나 널리 유통된 형태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교분에 기반한 네트워크 속에서 일상적 교류를 통해 전달되고, 각자의 재배 실천을 거치며 검증, 보완, 심화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 화훼 지식은 고정된 체계로 축적되기보다, 교유망 속에서 순환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실천적 지식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훼 지식의 유통과 축적은 이학규(李學逵, 1776~1835)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학규는 유배 기간 동안 화훼를 직접 재배하여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탐구하였는데⁶¹ 그의 재배 실천에는 교유 관계에 기반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화훼 지식의 이동과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교유하던 유생 박씨[朴生]로부터 매화 가지 두 개를 얻어 화병에 꽂아 기르며 있다. 이에 대해 지은 시의 제목에는 “유황을 끓인 물과 섞어 병에 담아 매화를 기르니 며칠 후 꽃이 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매(早梅)”라고 불리는 만큼 매화를 인위적으로 조기 개화시키는 재배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시문에는 “이제 화노들이 갈고(鵝鼓)를 치는 것을 멈추어도 되니, 그 신령한 효력은 석정지(石亭脂)만 못하네”라는 구절이 등장하며, 이에 대해 이학규는 “본 초서에 따르면 유황 가운데 가품으로 석정지라는 것이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는 고전에서 꽃의 개화를 재촉하는 상징으로 사용된 “갈고”라는 복보다, 실제

⁶⁰ 沈象奎, “次韻楓臬”, 『斗室存稿』 卷2. “楓臬送水仙五顆使種之…余曾在燕中, 見臘月已爛開. 今此墨魁如凍芋而無芽苗, 疑其種之已晚時. 楓臬又云: ‘向亦種於此時, 比二月輒能抽葉作花.’ 余亦於瓷斗貯水, 倣其法種之. 數日便有小萌, 仍和其寄示韻.”

⁶¹ 이학규의 원예 취미와 재배 활동에 관한 국문학 분야의 연구는 정은주, “이학규의 화훼 취미와 菊影詩 창작”, 『인문과학』 49 (2012), 185-204; 김효정, “洛下生 李學逵의 園藝詩 研究”, 『한국민족문화』 61 (2016), 223-250 등 참조.

재배에 사용된 유황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⁶²

그렇다면 이러한 유황의 효과와 사용법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된 것인가? 물론 문헌 참고나 개인적 실험을 통해 습득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학규가 교유하던 지식인들과의 일상적 교류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했음은 확인된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유황을 섞은 끓인 물을 사용하고 밀랍으로 병 아가리를 밀봉하여 겨울에 매화를 조기 개화시키는 방법은 영남 지역 외의 한 수령이 검증한 문헌 속의 재배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방법은 영남 달성에 거주하던 유생 추봉래(秋鳳來, ?~?)가 이를 전해 들은 뒤, 다시 김해에 유배 중이던 이학규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⁶³ 이와 같은 재배법의 지역적 이동은 지식인 간 교분에 기반한 일상적·감정적 교류와 건문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학규는 이를 자신의 재배 실천에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식의 전달이 다시 교유 관계에 기반한 문학적 교류를 매개로 재구성되며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학규가 추봉래에게 보낸 칠언절구 가운데 “자기 화병의 아가리에 놓인 한 조각의 밀랍이 향기롭거늘 어찌 굳이 늙은 꽃장수에게 재배를 맡기리오”, “유황이 섞인 물 한술을 가져와 평상 앞에서 스스로 여린 싹을 길러보는 것은 어떠한가”와 같은 구절은, 추봉래가 전한 영외 수령의 재배법을 이학규가 재해석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편 “절인 고기와 맑은 소금은 운치가 부족하니 봄소식은 오로지 동백꽃에 맡겨 두었네”라는 구절의 주석에서는, 명나라 진계유(陳繼儒, 1558~1639) 『미공비급(眉公秘笈)』을 인용하여 소금이 섞인 국수를 사용하면 매화를 번성하게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재배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⁶⁴ 결국 이학규가 교유의 일환으

62 李學遠, “正月十八日 從杜谷朴生得早梅二枝 取硫黃滾湯瓶 養數日 花盛開 傍置山竹數莖 養兩小雀其中 詩以紀之”, 『洛下生集』 冊16, 『秋樹根齋集[癸未]』, “到來林下有佳期, 翠羽嘈嘈外枝. 從此花奴休羯鼓, 神功輸與石亭脂[硫黃有佳品, <本艸>謂之石亭脂].”

63 李學遠, “瓶梅四絕句”, 같은 책. “嶺外某守宰, 於冬日偶閱<養梅方>云: ‘白瓷瓶盛百沸湯水, 硫黃一塊作末滾和, 仍插梅枝瓶中, 以黃蠟路塞瓶口, 令勿洩氣, 不旬日爛開’ 按法試之, 良狀, 作七絕四章紀之. 達城秋生鳳來, 爲余道之. 乃和其韻, 以貽鳳來.”

64 李學遠, “瓶梅四絕句”, 같은 책. “醃豕晶鹽韻未多[陳繼儒《眉公秘笈》]: <《癸辛雜識》云: ‘折梅花插鹽中, 花開酷有肥態.’ 試之良狀 … 大雪探梅僧院, 僧出酒相餽, 因論前事, 僧言: ‘以醃豕滾汁熱貯瓶, 梅卻能放葉結子.’ 余始知古人鹽梅和羹, 故自同調.], 獨教春信在陀羅. 蠟香一片瓷罍口, 培養何須老橐駝. 未擬蠶砂壅桂葩, 錯將眞麝損脂瓜. 何如一勺鵝黃水, 自向牀前養嫩芽.” 시구의 번역은 정은주, “이학규의 화해 취미와 菊影詩 창작”, 『인문과학』 49

로 주고받은 시문은 검증된 화훼 재배법을 담아낸 일종의 실용적 지식 자료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교분에 기반한 일상적 교류 속에서 화훼 지식을 매개, 순환, 확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 간 교분에 기반한 일상적·감정적 교류와 소통 속에서 화훼의 실물과 그 지식은 주체 간, 그리고 지역 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교환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지식인들의 화훼 연구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과 지적 자원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정된 교유망 속에서 순환한 화훼 지식은 여러 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활용, 검증,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네트워크의 작동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의 원예 취미를 매개로 형성된 교류와 사적 친분, 감정적 유대가 결합됨으로써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화훼 실물과 지식의 교환은 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일상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결과적으로 지식 생산과 축적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4. 여행길의 화초포 탐방과 관행화된 견습의 노정

조선 후기에는 정원 유람을 통한 현장 견습과 화훼 수집을 매개로 한 정보의 이동·교환,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또 다른 형태의 화훼 지식 실천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해외 여행, 특히 연행(燕行) 과정에서 원예 관련 장소를 거듭 방문하는 관행이다. 조선 후기의 정기적 연행은 지식인들에게 국내 식물 지식 네트워크를 외연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연행을 통해 중국의 화훼 실물과 관련 정보를 조선에 도입, 유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여행이라는 경험 자체가 중국의 원예 문화와 재배 기술을 직접 접하는 현장 학습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예 취미가 확산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북경 체류 중 원예 관련 장소를 방문하고 그 견문을 기록하는 일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적 실천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연행 경로와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 장소가 바로 북경의 “화초포(花草鋪)”이다. 다시 말해, 북경에 도착한 조선 지

(2012), 191을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식인들은 화훼 시장인 화초포를 관행처럼 방문하고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간에서의 현장 견습과 장소 및 화훼 관련 정보의 장거리 이동이 결합되며, 일종의 “관행화된 지식 실천”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초포는 화훼를 판매하는 상점으로, 그 출현과 운영은 18-19세기 북경에서 두드러진 문화 현상이자 상업 활동이었다. 당시 북경 성내에서는 동쪽의 융복사(隆福寺), 서쪽의 호국사(護國寺)를 중심으로 회회(廟會)가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대규모 상업 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이곳에는 서화포·문구포·골동포 등과 더불어 화초포도 밀집해 있었다.⁶⁵ 특히 일부 화초포는 단순한 소매점에 그치지 않고, 온실 시설을 갖추어 화훼를 자체 재배하고 직판하는 “화창(花廠)”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⁶⁶ 흥미로운 점은, 융복사 인근에 이러한 화초포는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 지식인의 연행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화초포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기록은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1766년 연행 중 융복사 동쪽의 한 화초포를 방문하고 남긴 글에서 확인된다. 이후 화초포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필수적인 방문지이자 여행기의 주요 기록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⁶⁷ 특히 이들 기록은 유사한 묘사 구조와 관찰 항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화초포에 대한 홍대용의 다음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5 潘榮陸, “都城廟廟”, 『帝京歲時紀勝』. “至於都門廟市, 朔望則東嶽廟·北藥王廟, 逢三則宣武門外之都土地廟, 逢四則崇文門外之花市, 七八則西城之大隆善護國寺, 九十則東城之大隆福寺, 俱陳設其夥. 人生日用所需, 以及金珠寶石, 布疋絢織, 皮張冠帶, 估衣骨董, 精麤畢備.”; 富察敦崇, 『燕京歲時記』, “東西廟, “西廟曰護國寺, 在皇城西北定府大街正西. 東廟曰隆福寺, 在東四牌樓西馬市正北. 自正月起, 每逢七八日開西廟, 九·十日開東廟. 開廟之日, 百貨雲集. 凡珠玉綾羅·衣服·飲食·古玩·字畫·花鳥·魚蟲, 以及尋常日用之物, 星占雜技之流, 無所不有, 乃皇城內之一大會也.”

66 富察敦崇, “東西廟”, 『燕京歲時記』. “兩廟花廠尤爲雅觀. 春日以果木爲勝, 夏日以茉莉爲勝, 秋日以桂·菊爲勝, 冬日以水仙爲勝. 至於春花中如牡丹·海棠·丁香·碧桃之流, 皆能於嚴冬開放, 鮮艷異常. 洵足以巧奪天工, 預支月令.”; 李彭·靳麟·李大鵬, “隆福寺街的花店”,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北京市東城區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 『北京市東城區文史資料選編(第一輯)』 (內部發行, 1988), 167-168.

67 관련 기록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해응(李海應, 1775~1825)의 『계산기정(薊山紀程)』, 남이익(南履翼, 1757~1833)의 『초자속편(椒蔗續編)』,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유연고(游燕藁)』, 김진수(金進洙, 1797~1865)의 『벽노후집(碧蘆後集)』,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의 『연원직지(燕巖直指)』, 박사호(朴思浩, 1784~1854)의 『연계기정(燕薊紀程)』, 서경순(徐慶淳, 1804~?)의 『몽경당일사편(夢經堂日史編)』, 이유준(李有駿, 1801~1867)의 『몽유연행록(夢遊燕行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의 『수사록(隨槎錄)』 등이 있다.

화초포는 용복사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정월 12일 가보니 모두 흙집을 짓고 각종 화분들을 넣어 두었는데, 위는 밝은 창문을 통해 놓았고 아래는 온돌을 만들어 두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봄 기분이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서 화초는 모두 꿈꿨을 얼어붙었는데, 유독 이 조그만 흙집 속만은 만 세계를 이루어 붉은 꽃, 흰 꽃들이 서로 비치니, 또 하나의 색다른 경치이다. 모란·작약·수선화·해당화·홍매·백매·석류·월계수 등 없는 것이 없다. 대개 부잣집의 관상용으로 팔리는 모양인데, 사 가는 사람들 또한 끊어질 새가 없으니 이익이 많은 것을 알겠고, 풍습이 사치를 좋아하는 것도 짐작이 갔다.

서쪽으로 훨씬 넓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십 개의 화분에 풀과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그늘을 이루고 있었다. 대함에 더욱 상쾌한 기분을 던져 주었다. 대개 중국 풍속이 석류를 제일 소중히 여기고 월계수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봄 늦게 사람 집안에서 가꾸어진 화초들을 들여다보면, 석류가 그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화는 우리나라 산단화(山丹花)와 매우 흡사한데, 다만 색깔이 연분홍에 꽃잎이 좀 큰 편이다. 수선은 뿌리는 무 같고 줄기는 파 같고 꽃은 원추리 같은데, 회고 약간의 향기가 풍긴다. 봉오리가 터지기 전엔 모두 아래로 수그리고 있다가 터질 무렵이 되면 평상시처럼 일어서게 되므로 중국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긴다.⁶⁸

홍대용은 용복사 동쪽에 위치한, 온실과 같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화초포의 형태와 판매되는 화훼의 종류를 소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당시 북경의 원예 취향까지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그의 최초의 설명은 이후 지식인들이 반복적으로 주목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대 연행사들은 화초포를 탐방하면서 홍대용의 기록에서 시사된 관찰의 틀을 공유하고, 유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견문을 기록하였다.

첫째, 화초포의 공간 구조와 축조 방식이다. 홍대용의 묘사에 따르면 해당 화

68 洪大容, “花草鋪”, 『湛軒書外集』卷9, 『燕記』. “在隆福寺東里許, 正月十二日往見, 皆築土室, 藏各種花盆. 上通明窓, 下爲溫炕, 入其中盎然有春意. 時雪天風寒, 百卉凍瘕, 獨此半畝土室, 裝成別界, 紅白交輝, 亦一異觀也. 如牧丹·芍藥·水仙·海棠·紅白之梅·石榴·月桂諸種, 無不有. 蓋用供豪富家玩好, 而買者亦相繼, 可占其利之饒贏, 亦可見習俗之侈靡也. 西有一室, 盆弘敞, 數十盆卉樹, 綠葉布蔭, 對之益爽然也. 蓋華俗最重石榴, 月桂次之. 春晚, 見人家花種, 多或四五十盆, 列置階庭, 石榴居三之一. 海棠酷似我國山丹花, 但色淡紅而瓣稍大. 水仙根如蘿藦, 莖如葱, 花類萱而白, 有微香. 苦蕾未綻者, 皆折而下垂, 欲綻則必伸立如常. 華人所珍也.”

초포는 흙으로 지은 집으로 위에 창문, 아래에 온돌이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온실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연행 기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된다. 예컨대 1804년 화초포를 방문한 이해응이 “세 구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땅을 파서 굴집을 만들었는데, 그 등마루가 지면 위로 몇 치쯤 약간 드러나 있다”고 하여 그 규모와 굴집 구조를 설명하였다.⁶⁹ 굴집의 특징에 대해 1827년 홍석모는 “깊이가 4, 5치 이상이고 길이는 10여 칸, 너비는 3, 4칸에 이르며, 그 위에 대들보와 서까래를 얹고 띠풀로 겹겹이 덮여썩었다”고 하여 보다 상세한 축조 방식을 기록하였다.⁷⁰ 나아가 1831년 화초포를 방문한 한필교는 40, 50칸에 이르는 굴집이 갖추어진 넓은 공간을 묘사하며,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하다고 그 규모에 깊은 인상을 표하기도 하였다.⁷¹

이처럼 대규모 온실 시설을 갖춘 화초포는, 조선에서 겨울철 동해를 막고 화훼를 갈무리하기 위해 마련된 움집이나⁷², 앞서 살펴본 한양 성내의 옥외 화훼 점포와는 그 형태와 성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계절적 제약을 극복하고 화훼를 대량으로 재배,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축조 방식과 운영 기술은 조선 지식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온실 형태로 조성된 화초포 내부의 풍경은 대체로 12월이나 1월의 한겨울에 북경을 방문한 조선 지식인들에게 외부와는 전혀 다른, 봄기운이 충만한 이질적 공간, 곧 하나의 “기이한 경치[奇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방식과 구조적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화초포를 하나의 관찰 대상이자

69 李海應, “花草鋪”, 『薊山紀程』 卷3, 甲子正月初九日己亥: “從隆福之東, 入花草鋪, 鋪凡三處, 皆坎地爲窟室, 其脊出地數尺. 疏西旁而設窓, 入其中, 明晃不減高座.”

70 洪錫謨, “隆福寺傍花草鋪”, 『游燕藁』 中, 丁亥元月初七: “鋪在東四牌樓大市街之西, 掘地爲坎, 深過四五尺, 長十餘間, 廣三四間. 上施樑椽, 以茅苫重蓋之.”

71 韓弼教, “花草鋪”, 『隨槎錄』 卷3, 『遊賞隨筆』 下, “京城處處有花草鋪, 而其在隆福寺之東者, 最稱可觀. 入其門, 有庭廣闊, 可以馳馬 … 有草窩土窩, 幾四五十間, 皆設疎窓, 以洩其積氣.”

72 조선 초기 『양화소록』의 수장법(收藏法)이나 조선 후기 『산림경제』, 『예원집』 등에 보이는 교장법(窖藏法)은 모두 겨울철에 움집을 마련해 화훼를 갈무리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움집은 화훼를 사시사철 재배하거나 조기 개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겨울에도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시설로 보인다. 姜希顔, “收藏法”, 『養花小錄』; 洪萬選, “養花 窖藏法”, 『山林經濟』 卷4; 徐有渠, “收藏 窖藏法”, 『林園經濟志』 卷18, 『藝畹志』 卷1.

기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조선 지식인의 관심을 끈 화초포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화훼가 사시 사철 생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온 장치와 재배 기술에 있었다. 홍대용의 기록에서 확인되듯, 화초포 내부의 지면에는 온돌이나 연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불을 지피면 꽃향기와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실내에 가득 퍼졌다는 묘사가 여러 연행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⁷³ 그러나 화초포의 연돌은 단순한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석모가 “연기를 쏘이고 물을 대어 화훼를 기른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⁷⁴, 화초포의 연돌은 병충해 방제와 같은 화훼 관리에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⁷⁵ 이러한 재배 기술은 조선 지식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지식으로 축적되었다.

특히 화초포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은 화훼를 재배하고 개화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 보온 장치와 더불어 다양한 인위적 재배 기술이 동원되었다. 1855년 겨울, 서경순은 화초포에 다녀온 정사와 부사의 견문을 바탕으로 당시 북경 화초포에서 송나라 항주 마승(馬勝) 일대에서 사용되던 “당화법(堂花法)”이 활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⁷⁶ 이 방법은 밀폐된 굴집의 조성, 소 오줌과 유황을 섞어 토양에 거름을 준 뒤, 끓는 물을 구덩이 속에 부어 증기(蒸氣)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개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최화법(催花法)을 포함하는 기술이었다. 이 당화법은 송나라 주밀(周密, 1232~1298)의 『제동야어(齊東野語)』에 처음 기록된 이후⁷⁷ 청나라 왕사정

73 李海應, “花草鋪”. “花香滿室, 暖氣襲人, 可謂人工奪天造矣.”; 金景善, “花草鋪記”, 『燕轅直指』 卷3, 『留館錄』 上, 壬辰年十二月二十六日. “自鴻臚寺歸路, 入見一鋪, 則掘地爲長屋數十間, 上爲漏納明, 下爲烟煖點火, 暖氣薰郁, 列置各樣花盆.”

74 洪錫謨, “隆福寺傍花草鋪”. “坎中列置各品花卉, 地氣溫燠, 又熏澆以養之.”

75 조선 후기에 훈연법이 식물의 충해를 방제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법으로 햇볼로 과수를 그을리거나, 습과 유황가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는 등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洪萬選, “種樹·辟果蟲法”, 『山林經濟』 卷3.

76 徐慶淳, 『夢經堂日史編』 4, 『紫禁瑣述』, 七年乙卯十二月十九日丁未. “上使丈與副使往見花草鋪, 盛說花草之勝曰 … 宋時武林馬勝藏花之法: ‘紙糊密室, 鑿地作坎覆竹, 置花其上, 糞土以牛溲·硫黃, 然後煮沸湯于坎中, 候湯氣熏蒸, 扇之, 經宿, 則花放.’ 今京師園丁皆用此法云.”

77 周密, “馬勝藝花”, 『齊東野語』 卷16. “馬勝藝花如藝粟, 橐駝之技名天下 … 凡花之早放者, 名曰堂花[或作塘]. 其法以紙飾密室, 鑿地作坎, 緘竹, 置花其上, 糞土以牛溲硫黃, 盡培養之

(王士禎, 1634~1711)이 『거이록(居易錄)』과 『향조필기(香祖筆記)』 등에 이를 재수룩하면서 “오늘날 경사(京師)의 원정(園丁)들이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⁷⁸ 왕사정의 저술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혔으며, 서경순의 설명 역시 왕사정의 언급을 직접 참조한 것이었다. 즉 조선 지식인들은 문헌을 통해 접한 재배 기술을 연행 과정에서 화초포라는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화훼의 초기 개화를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이미 익숙하게 알려져 있었다. 이는 중국 『거가필용(居家必用)』에 기원을 두고, 조선 초기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을 거쳐 『산림경제』와 『예원지』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된 기술이다.⁷⁹ 이 방법은 말뚝을 물에 우려 뿌리면 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굴집의 조성, 보온, 복합적 시비 등을 수반하는 당화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북경 화초포에서 구현된 당화법이 조선 지식인들의 주목을 끈 이유는, 온실 구조와 시비법 등이 결합된 복합적 재배 기술이 조선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지식인들은 이러한 기술을 “인력으로 하늘의 조화를 빼앗은 것”이라 표현하며 감탄하였고⁸⁰, 이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체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조선 지식인의 또 다른 중요한 견습 대상은 화초포에 진열된 다양한 화훼 품종이었다. 이들은 화훼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품종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중국과 조선 간의 품종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홍대용은 화초포에 있는 화훼 가운데 중국에서 특히 중시되는 품종으로 석류와 월계를 지목하고,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해당화⁸¹와 수선화의 형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른 지식인들 역시 품종의 희귀성

法，然後置沸湯于坎中，少候，湯氣薰蒸，則扇之以微風，盎然盛春融淑之氣，經宿則花放矣。”

⁷⁸ 王士禎, 『居易錄』卷4. “宋時武林馬勝藏花之法: 紙糊密室, 鑿地作坎覆竹, 置花其上, 糞土以牛溲疏黃, 然後置沸湯于坎中, 候湯氣薰蒸, 則扇之, 經宿, 則花放. 今京師園丁亦然”; 王士禎, 『香祖筆記』卷3. “宋時武林馬勝藏花之法: 紙糊密室, 鑿地作坎覆竹, 置花其上, 糞土以牛溲疏黃, 然後置沸湯于坎中, 候湯氣薰蒸, 則扇之, 經宿, 則花放. 今京師園丁亦然.”

⁷⁹ 姜希顔, “催花法”, 『養花小錄』; 洪萬選, “養花·催花法”, 『山林經濟』卷4; 徐有渠, “瑣言·催花法”, 『林園經濟志』卷18, 『藝畹志』卷1; 李圭景, “堂花瓶花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卷36.

⁸⁰ 洪錫謨, “隆福寺傍花草鋪”. “四時芳英, 皆爛漫如春, 人工之奪造化, 良可異也.”

⁸¹ 당시 조선 민간에서는 장미과 장미속 식물(*Rosa rugosa*)을 “해당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동

과 지역적 차이에 주목하여 이를 평가하고 기록하였다. 예컨대 박지원은 화초포의 국화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에도 존재하지만, “학령(鶴翎)”은 조선 것보다 줄기가 짧고, “금국(金菊)”은 조선에 없는 특이한 품종으로 그 모양이 동전과 같다고 설명하였다.⁸² 이해응 또한 영춘화·수선화·천추화·말리화·석류·자몽·해당화·종려나무·선인장·옥잠화 등을 특별히 관람할 만한 품종으로 언급하였다.⁸³ 북경 화초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선화·치자·석류·종려나무 등은 이미 조선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던 인기 품종이었으며, 불수감·남천·선인장·말리화 등은 조선에서 보기 힘든 희귀 품종이었다.⁸⁴ 이러한 점에서 화초포에 진열된 화훼들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강한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이 화초포의 화훼 목록에 주목한 것은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 조선 내 보유 품종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종(種)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훼 지식 체계를 확충하려는 지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유구의 저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예원지』와 『만학지(晩學志)』에서 중국과 조선의 식물 품종 차이를 전제로, 납매, 겹꽃 석류, 매괴, 백색 외의 목련, 난초꽃, 홍·백색 외의 연꽃, 운향(芸香), 남천, 호자나무, 종려나무 등 여러 식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였다.⁸⁵ 이와 같은 서유구의 언급은 단순히 원에 취미를 충족하려

일한 명칭으로 지칭되었음에도, 중국에서 유래한 장미과 사과나무속의 “해당화(*Malus spectabilis*)” 역시 조선 사회에 알려져 있었다. 이에 일부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명칭 혼용을 문제 삼아, 조선 민간의 물명 사용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⁸² 朴趾源, “黃圖紀畧·花草鋪”, 『燕巖集』 卷15, 『熱河日記』, “時方秋菊盛開, 皆我東所有, 而最多鶴翎, 而莖不特長. 獨金菊最異, 花朵僅如錢大, 而如新鍍金箔.”

⁸³ 李海應, “花草鋪”. “桃杏梅桂之屬, 猶未足神異, 而其中映春水仙·千秋·茉莉等花, 皆爛漫芳華, 花香滿室, 煖氣襲人, 可謂人工奪天造矣. 其他石榴·橘柚·海棠·柳竹·櫻櫚·仙人掌·金蘭·玉簪諸草卉, 亦爭秀競妍, 皆堪把玩.”

⁸⁴ 申泰義, “山川風俗總錄”, 『北京錄』, “橘與佛手·榴子大同小異, 而嗅味香甜, 一般花草鋪, 皆有此三色果木, 見方正月開花爛熟, 蓋見土風之異也.”; 李有駿, 『夢遊燕行錄』 下, 己酉 初八日, “行里許, 路旁有花草鋪 … 百花爛開, 蓋紅白諸種, 太半梅流, 而辛夷, 芍藥間有之, 又佛手, 天竹, 仙人掌之屬, 皆所初觀.”; 李裕元, “薛荔新志”, 『林下筆記』 卷35, “燕市賣花鋪, 別無奇種. 而佛手柑, 離離在枝. 樹不過一丈, 僅容盞盞, 恨不見高大也.”

⁸⁵ 예컨대 석류화에 대해 서유구는 “북경에는 겹백석류화·겹분홍석류화·겹황석류화·겹대홍석류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나는 품종으로는 다만 홑꽃만 있어서 사계·병자·중대 등의 특이한 겹꽃 품종은 보지 못했다. 석류씨를 사서 대를 널리 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徐有渠, “花類”, 『林園經濟志』 卷19, 『藝畹志』 卷2, “石榴花 … 燕中有千瓣白·千瓣粉紅·千瓣黃

는 원물적 태도를 넘어, 화훼 지식을 보완하고 체계화하려는 지적 탐구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그러한 지식 확충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실천적 지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경 화초포에서 다양한 화훼 품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 내 원예 활동의 전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화훼 지식의 확대 과정에서 화훼 실물과 관련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자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행 기록에 나타난 화초포의 묘사는 건물 구조, 재배 기술, 화훼 품종 등 여러 측면에서 놀라울 만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현상적 일치를 넘어, 공유된 문화적 실천과 기록 전통의 전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초포 탐방과 그에 대한 기록은 조선 지식인들의 개별적 경험이 반복된 결과인 동시에, 지식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관행화된 여행 체험과 견습 방식을 구조적으로 재현하고 규범화한 산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교유 관계와 기록 전통이라는 두 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강화되었다.

먼저, 북경에서의 여행 체험과 그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도 지식인 간 교유 관계를 매개로 조선 사회 내부로 확산되었다.⁸⁶ 18세기 중반 이후 북경 화초포 탐방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과 정보의 장거리 이동, 그리고 내부 확산의 활성화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1760년대 홍대용의 화초포 탐방과 소개 이후, 그를 중심으로 한 북학과 및 관련 실학자 집단에서 화초포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북학과 대표인물인 박지원은 물론이고 북학과와 교유한 실학의 거두였던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손자인 홍석모 등도 이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달성 서씨 가문과 연결된 정사 서희순(徐熙淳, ?~?)과 그를 모신 종사관 서경순, 그리고 정사 서경보(徐耕輔, 1771~1839)의 서장관으로서 따라간 김경선 등도 북경 사행 중 화초포를 들러 구경하였다. 또한 신위를 중심으로 한 교유망에 속한 양반인 이유원, 기술직 중인인 김진수 등 역시 화초포를 탐방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千辦大紅 … 吾東之產，只有單葉。千葉數種如四季餅子、重臺等異種未之見焉，宜購種傳殖也。”

⁸⁶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매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68 (2009), 81-112.

교유망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인 간의 구두 대화나 서신 왕래를 통해 화초포의 존재와 관찰 항목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었으며, 그 결과 “탐방-교유-확산-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식 실천의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행록이라는 기록 매체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였다. 연행록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을 기록한 문헌에 그치지 않고,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활발히 회람되고 향유된 텍스트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북경 화초포의 위치와 구조, 화훼 품종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지식 또한 폭넓게 확산되었다. 특히 홍대용의 연행록이 조선 후기 가장 널리 읽힌 3대 연행록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기록한 융복사 동쪽 화초포에 대한 상세한 묘사 역시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텍스트의 축적과 유통은 후대 지식인의 지식 실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대의 연행록을 통해 화초포에 대한 정보를 익힌 지식인들은 연행길에 오르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자 화초포를 방문하였으며, 나아가 선행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자신의 기록을 구성하였다.⁸⁷ 예컨대 김정선은 화초포의 상업적 성향을 서술하면서 홍대용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고⁸⁸, 박사호 또한 이해응의 화초포 묘사를 직접 베껴 쓰기도 하였다.⁸⁹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선행 텍스트의 단순한 모방이나 기계적 재현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정선의 경우,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한편, 홍대용 등의 전대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정, 보완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인의 표현이 정밀하고 이름답다고 판단될 때 그 구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⁹⁰ 즉 그는 “경험의 일치”와 “표현의 적합성”이라는 두 기

87 조선 후기 연행록의 상호원전성, 서술 형식 및 내용 구성 등의 유사성·관련성에 관해서는 임기중, “연행가사와 연행록의 상호원전성과 유행양식”, 『연행록연구총위』 (학고방, 2014), 55-95 참조.

88 洪大容, “花草鋪”. “蓋用供豪富家玩好, 而買者亦相續, 可占其利之饒贏, 亦可見習俗之侈靡也.”; 金景善, “花草鋪記”. “蓋用供豪富家玩好, 而買者亦相續, 可知其爲利市, 而亦可驗習俗之侈靡也.”

89 李海應, “花草鋪”; 朴思浩, “花草鋪”, 『燕薊紀程』卷2, 『留館雜錄]. 이해응의 『계산기정』과 박사호의 『연계기정』 간의 텍스트 계보학적 특징에 대해서 임영길, “조선후기 연행록의 계보적 고찰 - 서유진의 『종원연유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4 (2022), 51-83 참조.

90 金景善, “燕輶直指序”, 『燕輶直指』.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 苟非遍搜旁摭, 以相參互而折衷之, 則鮮能得其要領 … 歲壬辰, 余充三行人,

준에 따라 화초포에 대한 홍대용의 묘사를 수용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행록의 저술은 기록을 매개로 전대와 후대의 지식인들이 각자의 경험을 교차시키며 일종의 “상호 소통”을 수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⁹¹ 다시 말해, 조선 지식인들은 화초포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공유된 지적 형식 속에서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북경 화초포 탐방은 조선 후기 지식인에게 여행을 통한 화훼 지식의 현장 견습, 원예 정보의 지역적 이동과 사회적 재현, 그리고 교유와 기록에 기반한 지식의 재생산 등이 결합된 복합적 지식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유 관계라는 인적 연대와 연행록이라는 공유된 기록 형식이 교차하며 작동함으로써, 해외 원예 공간에 대한 접근과 견습은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되고 점차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규범적이고 연동적인 지식 실천은 화훼 재배 기술과 품종 등에 관한 지식의 지속적인 축적과 보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5. 맺음말

비록 조선 후기에 유박이나 서유구와 같이 전문적 문헌 연구와 재배 실천을 결합한 체계적 원예서의 저술이 드물었고,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원예학 또한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예가 비체계적이거나 단순한 취미 활동에 머물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지식인들이 일상적 교유와 화훼에 밀착된 취미적 실천을 매개로 재배와 감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훼에 관한 지식 실천을 전개하고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지식인들은 교유 관계에 기반한 단체 정원 유람과 문예 모임을 통해 화훼의 품종과 형태를 직접 관찰하는 한편, 특정 공간 속 상호작용과 대화, 시문

七閱月而往還。山川道里。人物謠俗。與夫古今事實之可資採摭者。使事始末。言語文字之間。可備考據者。無不窮搜而悉蓄。隨卽載錄。而義例則就準於三家。各取其一體。…至於沿革之古今相殊處。備述其顛委。爲覽者釋疑。蹈襲之彼此難免處。直書其辭意。俾前人專美。若夫張皇鋪敘。求其辭句之工鍊。則非直前所述已備。又豈自量所及。”

⁹¹ 노경희, “『燕巢』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 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 (2012),

텍스트를 매개로 화훼 지식을 유통, 확산하였다. 또한 교분을 바탕으로 화훼 식물과 관련 지식을 교환하고 이동시키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화훼 재배와 연구에 필요한 물질적 자료와 지적 자원을 상호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훼 지식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활용, 검증되며 점차 심화되었다. 나아가 교유 관계와 연행록을 매개로 관행화, 규범화된 북경 화초포의 탐방을 통해 중국의 원예 문화와 화훼 지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조선 나름의 화훼 지식 체계의 보완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의 작동, 사물의 이동과 참여, 그리고 특정 공간과의 접촉이 결합된 복합적 네트워크 속에서 조선 후기의 원예는 단순한 취미적 탐구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관여하는 사회적 지식 실천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화훼 지식이 고정된 체계로 축적되기보다, 교유망 속에서 순환, 검증,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확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원예 활동과 화훼 연구는 서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학술 활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기보다, 화훼에 밀착된 일상적 취미와 다양한 주체가 엮인 교유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식 실천이었다. 즉 조선 후기 원예는 형식화된 학문 체계라기보다, 화훼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매개로 형성된 지식인 간 교유 속에서 수행된 관계적·협동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정원 유람, 화훼 교환, 화초포 탐방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 비교하고, 이를 자신의 실천 속에서 검증한 뒤 다시 네트워크로 환류시키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유 기반 지식 네트워크는 근대 유럽의 범유럽적 학술 공동체와 같이 보편적 정체성이나 제도적 기반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일상적 문예 활동에 기반한 보다 사적이고 긴밀한 인적 연대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식 유통에 필요한 신뢰성 역시 근대 유럽에서처럼 엘리트 집단의 인격적 기준이나 경험적 규범에 의해 확보되기보다, 교유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호 인식, 경험의 정서적 공유, 반복적 검증 및 보완의 실천 등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 원예는 유교 사대부 문화에 기반한 문예적 취향과 감정적 유대의 공유가 지식 생산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 실천의 구조 속에서 원예는 조선 후기 지식인 네트워크의 작동을 통해 형성된 지식 생산의 한 형태이자, 지식인 사회 내부의 새로운 지적 연대를 창출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조선 후기 원예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함과 동시에, 한국 과

학사 및 지성사의 전개 양상을 재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저술 성과나 학문 체계의 형성뿐 아니라, 특정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지식 실천 자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순환·축적·심화 역시 “지적 발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고는 주로 유교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작동 양상을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의지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조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식인과 비엘리트층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식 생산에 미친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투고: 2026년 3월 2일, 심사 완료: 2026년 4월 3일, 게재 확정: 2026년 4월 10일)

Horticulture in Late Chosŏn Korea: Knowledge Practices Mediated by Literati Sociability and Flowers

ZHENG Zex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often dismissed as a refined pastime of the literati, horticulture in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Chosŏn functioned as a meaningful site of network-based knowledge practices mediated by literati sociability and the materiality of flowers. Rather than developing into a formalized discipline, late Chosŏn horticulture took shape as a 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ractice grounded in dense networks of scholar-officials, the circulation of plant materials and relative information, and embodied engagements with ornamental species. Stable social ties facilitated organized garden excursions and poetic gatherings that served as key venues for observing, exchanging, and validating plant knowledge. The gifting of rare species from China and Japan stimulated new cycles of cultivation and investigation, while diplomatic missions to Beijing—including routinized visits to urban flower markets—fostered distinctive ways of perceiving, handling, and studying plants. Unlike the pan-European scholarly communities of early modern Europe, which relied on universalist identit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is Chosŏn network operated through intimate personal ties and everyday literary activities, with credibility secured through mutual recognition, shared affective experience, and iterative verification among peers. In this way, horticulture developed as a modest yet dynamic mode of knowledge-making that bridged elite inquiry and everyday life.

Keywords. Chosŏn Korea, Horticulture, Literati Sociability, Network, Knowledge Practices